

‘고잔’ 지명의 유연성(有緣性) 고찰

조성욱*

Study on the Origin of Geographical Name ‘Gozan’

Sungwook Cho*

요약 : ‘고잔’ 지명은 지형 조건인 ‘곶’에서 유래했다는 논의가 우세하나, 인문 조건인 ‘잔교’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고잔’ 지명은 서해안에만 분포하며, 평안남도와 전라북도 사이에 분포한다. 특히 경기만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둘째, 모두 서해안의 조석간만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위치한다. 셋째, ‘고잔’은 한자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고잔(古棧)’이 가장 많고, 뒷 글자인 ‘잔(棧)’자가 거의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서, 잔교라는 특성을 반영한 ‘고잔(古棧)’이라는 한자의 표기가 본래의 의미를 가장 가깝게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행정구역의 위계 측면에서 과거에 그 기능이 존재했던 지역이고, 현재는 그 기능이 의미가 없는 유물지명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마을의 위치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 및 상대적 해발고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곶’ 지형과 관련된다고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주변에 포구 지명과 함께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나루터나 포구 이전에 존재했고 그 기능을 상실한 어로 관련 접안시설이 있던 마을로 추정된다.

주요어 : 고잔, 지명 유연성, 곶, 잔교, 서해안, 조석간만지역

Abstract : Geographical name ‘Gozan’ was known to be mainly originated from topography ‘headland’, bu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possibility of origination from ‘pier’.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eographical name ‘Gozan’ is only located in the Western Coast region between Pyongnam and Jeonbuk Province, especially highly clustered around the Gulf of Gyeonggi. Second, all the locations of ‘Gozan’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tidal ebb area of the Western Coast. Third, ‘Gozan’ has a variety of chinese names with different characters, but among them, ‘Gozan(古棧)’ is the most frequented and rear letter(棧) is almost same. It can be assumed that ‘Gozan(古棧)’ reflected the characteristic of the pier, which is the most close expression to the original meaning. Fourth, in terms of hierarchy of area,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was a function related with the ‘Gozan’ in the past, but the function disappeared, and now remains the name as a relics. Fifth, by considering village's location, relation with the surrounding area, and relative elevation differences, it is difficult to make sure that the name was originated from ‘headland’ terrain. Sixth, in terms of presence with a ferry or catch geographical name, it can be assumed that ‘Gozan’ existed before the village which had the ferry or catch function, and lost the function which is a berthing facilities related fishing.

Key Words : Gozan, Origin of geographical name, Headland, Pier, Western Coast, Tidal ebb area

I. 서론

지명은 자연조건이나 인문조건 또는 인위적인 조합에 의해서 탄생하고, 사람들 간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불리

워진다. 지명연구는 지명언어학과 지리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명언어학에서의 연구는 어휘론적 연구, 의미론적 연구, 음운론적 연구, 형태론적 연구, 응용언어학적 연구 등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ww@jbn.ac.kr)

다(이철수, 1982:459). 지리학에서는 지명 발생과 인문 및 자연 조건과의 관련성, 지명의 변화, 고지도의 지명연구, 지명을 통한 지역성 연구, 지리교육에서의 활용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조성욱, 2015:48).

특히 지명의 생성 원인은 자연환경에서 유래한 경우, 인문환경에서 유래한 경우 그리고 기존 지명의 조합이나 언어적 변화, 행정구역 개편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위적 지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조성욱, 2004:86). 이와 같이 지명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생성되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지명의 유연성(有緣性) 문제이다. 지명의 생성 원인이 밝혀지면, 그 지명의 해석을 통하여 지명 생성 시기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명의 생성 원인 즉, 지명의 유연성을 밝히는 일은 지리학에서 지명 연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고잔’ 지명은 ‘바다나 강으로 튀어 나온 곳의 지명이 차자(借字)된 것’ 또는 ‘과거 잔교가 있었던 곳’이라는 두 가지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명이다. 즉, 지명의 유연성(有緣性)에 대한 논란이 있는 지명이다.

한글로는 ‘고잔’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한자로는 ‘古棧’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한자로 표기되고 있다(高棧, 罾棧, 高蓋). 뒷 글자에 해당하는 잔(棧)은 ‘잔도, 비계, 판관, 동물 우리의 바닥에 깔아 놓은 판자’ 등을 의미한다(Daum 국어사전). 그리고 잔교(棧橋, pier, scaffold board)는 ‘배를 댈 수 있도록 물가에 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구조물’(Daum 국어사전), 그리고 토목용어에서는 ‘계류시설의 일종으로 일련의 말뚝기초 위에 상판을 설치하여 교량과 형태가 비슷한 접안시설로 해안선과 평행한 횡간교와 해안선과 직각인 돌계식 잔교가 있다’(Daum 백과사전)로 정의되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한자인 ‘고잔(古棧)’의 의미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과거 나루터의 잔교가 있었던 곳, 배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잔교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잔’이라는 지명이 잔교에서 유래했다면 인문환경에서 유래한 지명이 된다.

그러나 ‘고잔’이라는 지명은 바다나 강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인 ‘곶’의 안쪽이라는 의미로, ‘곶안’이 되고 이것이 음운변화에 의해 ‘고잔’으로 변화하고 한자화가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우세하다(이영택, 1986:247). 즉, ‘곶’이 ‘고잔’으로 변하여 ‘고잔(古棧, 高棧)’ 등으로 차자(借字)된 지명으로, 지명의 유래를 지형 조건과 언어변화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이 ‘고잔’이라는

지명이 ‘곶’이라는 지형조건에서 유래했다면 자연환경에서 유래한 지명이 된다.

‘고잔’이 ‘곶’에서 유래했거나 ‘잔교’에서 유래했다면 본 포지션은 해안변이나 하천변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모두 해안변이나 하천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고잔’이라는 지명은 ‘곶’이라는 지형적인 측면과 ‘잔교’라는 인문적인 측면이 중복되어 나타난 지명일 수도 있다. 즉, 지형적 요인과 인문적 요인이 겹쳐서 ‘고잔’이라는 지명이 탄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지명의 유연성에 따라서 해당 지명에 의한 지역성 파악에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지명의 정확한 생성 원인인 지명의 유연성 파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잔’이라는 지명의 유연성을 밝히기 위해서, 전국에 분포하는 ‘고잔’ 지명을 추출하여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한자 표현에서의 차이, 지명의 행정상에서의 위계,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용도 추정 등을 파악해 본다. 그리고 해당 마을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에 분포하는 ‘고잔’ 마을을 대상으로 해당 마을의 지형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살펴본다.

분석에 사용된 ‘고잔’ 지명은 ‘Naver 지식백과(두산백과)’와 ‘Daum 지도’,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등에서 총 39개를 추출하였다.

II. ‘고잔’ 지명에 대한 기존 논의

1. 지형 조건으로서 ‘곶(串)’

‘곶’은 바다나 강 쪽으로 돌출된 육지를 일컫는다. ‘곶’을 나타내는 지명은 ‘갯(岬: 산허리 **갯**)과 ‘곶(串: 바다 쪽으로 좁고 길게 뻗어 있는 육지의 끝 부분) 등으로 표현되는데, 장기갯(長鬚岬, 호미곶, 포항시 대포면)과 장산곶(長山串, 황해도 장연군)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곶’을 나타내는 지명으로는 ‘곶’의 유사음으로 고(高, 古, 阜), 구(口, 九, 求), 꾸지, 꼬지, 꽃(花) 등이 있다(이영택, 1986:247).

또한 갯(岬)과 곶(串)의 지형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단(端), 말(末), 기(崎), 각(角), 취(嘴), 비(鼻), 술(戌), 두

(頭), 암(岩), 대(臺), 감(坎) 등이 있다(이영택, 1986:246). 그리고 꽃은 음운변화에 의해서 ‘꽃’으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한자화하는 과정에서 꽃(花)이 되어 화전리(花田里) 등의 지명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영택(1986)은 ‘고잔’의 유래를 지형조건인 ‘꽃’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특히 경기만 연안에 ‘고잔’ 지명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명언어학 연구에서도 ‘꽃’은 한자표기로 ‘고잔(高臺, 古棧, 高棧)’ 등으로 표현되지만, 모두 고유어 ‘꽃 + 안’의 취음(收音)으로 논의하고 있다(김병욱, 1997:7). 그리고 고잔계 지명은 해안의 마을에는 전국 어디에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지명이며, 꽃(串)은 면과 리 이름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꽃’은 한자로 표현될 때 ‘고(高, 古, 阜)’와 ‘구(口, 九, 求)’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음운변화에 의해서 ‘꽃’, ‘꽃이’, ‘고지’, ‘꾸지’, ‘꼬지’, ‘꽃(花)’, ‘꽃(高)’ 등으로 변화하고, 한자화 과정에서 다양한 한자로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꽃창(串倉)’ 마을이 ‘꽃창(高倉)’으로 변화하거나(김운학, 1996:193), ‘꽃안’이 ‘고잔’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꽃’ 관련 지명은 돌출되어 있다는 특성을 중심으로 끝을 의미하는 한자, 생물체에서 튀어나온 부분에 은유, 험한 정도 등에 따라서 다양한 한자로 표현되고 있다(표 1).

이와 같이 지형 조건인 ‘꽃’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명 표현 방법이 있는데, ‘고잔’도 이러한 ‘꽃’ 지형의 표현 방법 중의 하나인지, 또는 ‘꽃’ 지형 중에서 다른 요인과 결합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꽃’과는 관련이 없는 지명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 즉, ‘꽃’ 지형을 나타내는 다양한 한자와 한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잔’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게 된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인문 조건으로서 ‘고잔(古棧)’

‘고잔(古棧)’을 한자의 의미대로 해석하면 ‘옛날에 나루터가 있었던 곳’ 또는 ‘예전에 잔교가 있었던 곳’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배가 닿을 수 있는 접안시설이 있었던 곳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 잔교가 서해안과 같이 조석간만의 차이가 있는 곳에 있었다면, 고정식이었을 가능성과 조석간만의 차이에 적용한 뜬다리 부두 형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잔’을 과거에 있었던 나루터나 잔교가 있었던 마을로 보았을 때, 이것은 배의 접안시설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강이나 바다의 수상교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상교통과 관련된 지명을 추출하여 관련성을 살펴본다.

수상교통 관련 지명은 배(船)와 관련된 지명과 포구(浦口)나 도진(渡津) 관련 지명 그리고 다리(橋) 관련 지명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배가 닿는 곳을 선창(船艙)이라 하는데, 배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주(舟), 선(船), 선판(船板), 선진(船津, 배다리), 선두와 부두(船頭, 埠頭, 뱃머리) 등의 지명이 있다. 포구(浦口) 관련 지명으로 포(浦)는 개, 포구, 선착장을 뜻하며, 진(津)은 도진(渡津, 나루, 다리) 지명으로 쓰인다(이영택, 1986:402). 그리고 호(湖)는 호소나 유지(留池)를 의미하나 바다나 하천의 물이 고이는 곳이나 굽이 등을 ‘호’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며 선착장 지명에 많이 쓰인다. 도진(渡津)에는 선창, 선구상, 주막, 여관 등이 갖추어져, 하천이 범람하는 등의 이유로 나룻배가 왕래할 수 없을 경우 유숙해야 하기 때문에 도진 취락이 발달한다(이영택, 1986:403). 이와 같이 도(渡), 진(津), 포(浦), 호(湖) 등은 나루터 관련 지명이다.

표 1. ‘꽃’ 관련 지명의 다양한 형태

분 류		‘꽃’ 관련 지명
한자어	규모	갯(岬, 장기갯), 꽃(串, 장산꽃)
	끝의 의미	단(端), 말(末)
	생물체 비유	기(崎), 각(角), 취(嘴), 비(鼻), 술(戌), 두(頭)
	험한 정도	암(岩), 대(臺), 감(坎)
음운변화	한자어 변형	고(高, 古, 阜), 구(口, 九, 求)
	한글 변형	꾸지, 꼬지, 고지, 꽃이, 꽃, 꽃, 꽃안, 고잔

* 이영택, 1986:245-253 재구성.

표 2. 수상 교통 관련 지명

분류	관련 지명
1. 배 관련	주(舟), 선(船), 선판(船板), 선진(船津, 배다리), 선두 또는 부두(船頭, 埠頭, 뱃머리), 선창(船倉)
2. 포구 및 나루터 관련	도(渡), 진(津), 포(浦), 호(湖)
3. 다리 관련	주교(舟橋), 선교(船橋), 삽교(挿橋), 죽교(竹橋), 판교(板橋), 석교(石橋), 벌교(筏橋)

* 이영택, 1986:399-410 재정리.

다리(橋) 관련 지명으로 나무를 연결하여 다리를 만든 경우 주교(舟橋) 또는 선교(船橋)라고 하며, 다리를 만드는 자재에 따라서 삽다리(挿橋, 삽나무), 대다리(竹橋, 대나무), 널다리(板橋, 널판지), 돌다리(石橋, 돌) 등이 있고, 모양에 따라서는 쌍교(雙橋), 운교(雲橋), 곡교(曲橋) 등의 지명이 있다(이영택, 1986:399-410). 그리고 벌교(筏橋)의 경우는 중간 기둥을 세우지 않고 뗏목으로 연결하여 밀물과 썰물에 따라 적응했던 다리 형태이다(표 2).

그러나 이러한 수상교통 관련 지명에서 ‘고잔’은 찾을 수 없다. 결국 ‘고잔’은 포구나 나루터, 다리 등과 같이 수상교통과 관련된 지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굳이 ‘잔교’라는 인문환경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가정하면, 포구나 나루터보다는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소규모의 접안시설, 하역장 또는 부두 등의 시설이 있던 마을로 추정할 수 있다.

3. ‘고잔’ 지명에 대한 논의

이상과 같이 ‘고잔’에 대한 기존 논의는 ‘곶’이라는 지형조건에서 유래했고, 처음에는 한글 지명에서 시작하여 언어변화에 의해서 다양한 음으로 변화했으며(곶, 꾸지, 고지, 곶이, 곶안, 곶, 고잔 등), 이후 한자화하는 과정에서 고(高, 古, 阜)와 구(口, 九, 求) 관련 한자로 차음(借音)이 이루어졌다는 논의가 우세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자로 전환된 것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잔(古棧)’이라는 한자음을 풀이한 옛 나루터, 옛 잔교 등의 인문조건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형조건으로서 ‘곶’ 관련 지명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잔’이라는 지명이 부여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나루터

나 잔교 등 수상교통 관련 지명에서도 ‘고잔’과 관련 지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이 ‘고잔’이라는 지명은 아직 유연성을 확실하게 정의하기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잔’이라는 지명의 분포와 개별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여 ‘고잔’이라는 지명의 유연성(有緣性)을 밝혀 본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검토해 본다. 첫째, ‘고잔’은 ‘곶’ 지형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지리학이나 지명언어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술적 논의에서 가장 유력하게 인정되고 있는 가설이다. 둘째, 나루터나 잔교 등 과거 해상 및 수상 교통과 관련된 지명이다. 이 가설은 이 지명이 해안과 하천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논의이나,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가설이다. 셋째, ‘곶’이라는 자연조건과 나루터나 잔교 등의 인문조건이 결합된 지명이다. 이 가설은 ‘곶’ 지형에 관련된 지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잔’이라는 지명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의문과 지명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들이 과거 나루터나 잔교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특성이 결합하여 부여된 지명이라는 가설이다. 넷째, ‘고잔’은 지형조건인 ‘곶’보다는 인문조건인 ‘잔교’에서 유래했으며, 이 잔교는 나루터나 포구와 같이 수상교통의 역할보다는 조차가 심한 해안지역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하역장 또는 부두 등과 같은 어로 관련 생활시설이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III. ‘고잔’ 지명의 분포와 위치 특성

1. ‘고잔’ 지명의 분포 및 특성

추출된 39개의 ‘고잔’ 지명은 북쪽의 평안남도부터 남



그림 1. ‘고잔’ 지명의 분포(39개)

쪽의 전라북도 고창군까지 서해안에만 분포한다(그림 1, 표 3). 분포지역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평안남도(1)와 황해도(3), 인천광역시(3), 경기도(17), 충남(8), 전북(7) 등 총 6개 시도에 분포한다. 시도별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경기도(17) 지역으로 전체 39개 중 4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만 지역에 연해있는 인천과 충남을 포함하면 28개로 경기만 연안 지역에 전체의 71.8%가 분포한다.

다음에는 추출된 39개 ‘고잔’ 지명을 중심으로 지명이 위치하는 지점의 위치 특성 및 지형 조건, 한자표현의 차이, 지명의 행정상의 위계, 향토지 등 해당 지역에서 추정하는 용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1) 위치 및 분포 특성

‘고잔’ 지명이 분포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시도별로는 평안남도(1개, 2.6%), 황해도(3개, 7.7%), 인천광역시(3개, 7.7%), 경기도(17개, 43.6%), 충청남도(8개, 20.5%), 전라북도(7개, 17.9%) 등으로 6개 시도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서해안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표 3. ‘고잔’의 지명 분포

도별	시군별	행정구역 및 한자	용도추정	경위도
1. 평남(1)	중화군(1)	양정면 古棧	(대동강)	
2. 황해(3)	재령군(1)	남률면 古棧	(재령강)	
	벽성군(1)	동강면 古棧	(서해)	
	강령군(1)	광천리 古棧	(서해)	
3. 인천시(3)	남동구(1)	古棧洞	곶추정(서해)	N 37° 23', E 126° 43'
	서구(1)	경서동 高棧	(서해)	N 37° 33', E 126° 40'
	강화군(1)	불은면 고능리 高嶺	(사복천)(서해)	N 37° 41', E 126° 30'
4. 경기도(17)	안산시(1)	古棧洞	곶추정(서해)	N 37° 20', E 126° 50'
	김포시(1)	대곶면 대명리 고잔	곶추정(서해)	N 37° 38', E 126° 33'
	파주시(1)	장단면 정동리 高棧	곶추정(임진강)	N 37° 50', E 126° 40'
	시흥시(1)	월곶동 古棧	(서해)	N 37° 23', E 126° 45'
	화성시(9)	송산면 중송리 古棧	(서해)	N 37° 13', E 126° 42'
		송산면 고정리 古棧	곶추정(서해)	N 37° 14', E 126° 45'
		송산면 고포리 고잔	(서해)	N 37° 14', E 126° 40'
		서신면 궁평리 古棧	곶추정(서해)	N 37° 07', E 126° 42'
		장안면 장안리 古棧	(서해)	N 37° 02', E 126° 50'
		장안면 노진리 古棧	곶추정(서해)	N 37° 02', E 126° 49'
		우정읍 매향리 古棧	곶추정(서해)	N 37° 03', E 126° 46'
		남양읍 신외2동 古棧	(서해)	N 37° 16', E 126° 49'
		팔탄면 노하리 古棧	(서해)	N 37° 09', E 126° 52'

표 3. '고잔'의 지명 분포(계속)

도별	시군별	행정구역 및 한자	용도추정	경위도
	평택시(4)	현덕면 권관리 高棧	곶추정(서해)	N 36° 55', E 126° 55'
		원평동 신대동 高棧	곶추정(안성천)	N 36° 59', E 126° 04'
		청북면 고잔리 高棧	(서해)	N 37° 03', E 126° 53'
		포승읍 내기리 高棧	곶추정(서해)	N 36° 58', E 126° 52'
5. 충남(8)	당진시(3)	송악읍 고대리 古棧	곶추정(서해)	N 36° 58', E 126° 45'
		석문면 초락도리 古棧	(서해)	N 36° 59', E 126° 31'
		송산면 당산리 古棧	(서해)	N 36° 56', E 126° 39'
	서산시(5)	지곡면 도성리 고잔	(서해)	N 36° 53', E 126° 25'
		지곡면 무장리 고잔	(서해, 만)	N 36° 52', E 126° 28'
		부석면 송시리 고잔	곶추정(서해)	N 36° 43', E 126° 23'
		부석면 갈마리 高棧	(서해)	N 36° 43', E 126° 23'
		팔봉면 대항리 고잔	(서해)	N 36° 50', E 126° 22'
6. 전북(7)	김제시(2)	부량면 옥정리 古棧	나루터(동진강)	N 35° 43', E 126° 49'
		황산면 용마리 古棧	곶추정(두월천)	N 35° 48', E 126° 58'
	부안군(2)	상서면 고잔리 古棧	나루터(주상천)	N 35° 41', E 126° 41'
		보안면 유천리 古棧	(서해)	N 35° 36', E 126° 40'
	고창군(1)	부안면 송현리 厓棧	(서해)	N 35° 33', E 126° 37'
	전주시(1)	조촌동 古棧	곶추정(만경강)	N 35° 53', E 127° 02'
	익산시(1)	평화동 古棧	(만경강)	N 35° 55', E 126° 56'
6개 시도	20개 시군구	39개		

* 여기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보령시 청소면 신송리 '고잠(高岑)'은 고잔이 변화한 지명으로 추정되고(N 36° 28', E 126° 3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꽃안'은 고잔의 변형으로 추정됨(N 34° 49', E 127° 58').

** '용도추정'란에서 '(서해)'는 서해 바다와 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경위도는 1:50,000 지형도에서 추출함.

표 4. '고잔' 지명의 행정구역상 위치

도단위	시군구 단위
1. 평안남도(1개, 2.6%)	중화군(1)
2. 황해도(3개, 7.7%)	재령군(1), 벽성군(1), 강령군(1)
3. 인천광역시(3개, 7.7%)	강화군(1), 서구(1), 남동구(1)
4. 경기도(17개, 43.6%)	안산시(1), 김포시(1), 파주시(1), 시흥시(1), 화성시(9), 평택시(4)
5. 충청남도(8개, 20.5%)	당진시(3), 서산시(5)
6. 전라북도(7개, 19.0%)	김제시(2), 부안군(2), 고창군(1), 전주시(1), 익산시(1)
39개(100%)	20개 시군구

나 평안북도에는 분포하지 않는다(표 4).

시군별로는 20개의 시군구에 분포하는데, 경기도의 화성시(9개)와 평택시(4개), 충남의 서산시(5개)와 당진시(3개), 전북의 부안군(2개)과 김제시(2개)에 2개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

39개 '고잔' 지명 중 29개(74.4%)는 현재 또는 과거의 해안변(만을 포함)에 직접 면해 있었던 곳이다(표 5). 물론 현재는 간척 등에 의해서 내륙이 된 곳도 있지만 간척 이전에는 해안변에 위치해 있었다. 나머지 10개(25.6%)는 해안변이 아닌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모두 서해

표 5. ‘고잔’ 지명의 지리상 위치

분류	수 (비율)	지역
1. 해안가	29개 (74.4%)	해안면(또는 만)
2. 하천가	10개 (25.6%)	평안남도 중화군(대동강), 황해남도 재령군(재령강), 파주시 장단면 정동리(임진강),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사복천), 평택시 신대동(안성천),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동진강), 김제시 황산면 용마리(두월천), 부안군 상서면 고잔리(주상천), 전주시 조촌동(만경강), 익산시 평화동(만경강)
계	39개 (100%)	

안의 조수 영향을 받는 곳이다. 따라서 ‘고잔’ 지명이 위치하는 곳은 모두 서해안 조석간만의 영향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이 ‘고잔’ 지명의 분포 특징은 첫째, 동해안이나 남해안에는 나타나지 않고 서해안에만 나타난다는 점, 둘째, 서해안에서도 전체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평안남도과 전라북도 사이에서만 분포한다는 점, 셋째, 인천과 경기도 등 경기만 주변에 집중 분포한다는 점, 넷째, 충남의 경우는 경기만과 맞닿아 있는 당진시와 서산시에서만 나타난다는 점 등의 분포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고잔’ 지명 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서해안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서해안 지역의 특징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며, 하천의 내륙 깊숙이까지 조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또한 토사 퇴적과 간척사업 등으로 과거 해안 지역이 내륙화한 지역이 많아서 해당 지역의 과거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고잔’ 지명이 서해안에만 분포하는 것은 서해안의 가장 큰 특징인 조석간만의 차이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순히 ‘곶’ 지형이기 때문에 붙은 지명이라면 다른 지명이 많은데, 굳이 ‘고잔’이라는 지명을 부여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것은 또 다른 자연 조건인 서해안의 조석간만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서해안의 전 지역에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만 집중 분포한다는 점이다. 즉, 경기도와 인천 지역은 해안변의 전 지역에 분포하는데 비하여, 충남의 경우에는 경기만과 연해 있는 북쪽의 당진시와 서산시에만 분포하고, 지역적으로 떨어져서 전라북도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인천시(3), 경기도(17), 충남(8)

의 당진군과 서산시 등 경기만 일대 지역이다(28개, 71.8%). 이러한 분포 특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단순히 ‘곶’이라는 지형상의 특성 뿐 아니라 역사적·문화적인 요인과의 관련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잔’ 지명 위치의 공통점은 서해안에만 분포하고, 조석간만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경기만 연안 지역에 집중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잔’ 지명은 단순히 지형적인 특성인 ‘곶’에서 유래했다고 한정하기보다는, 자연조건인 조석간만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서해안 중에서도 특정 지역에서만 분포하는 점에서 역사적·문화적 함의 가능성이 있다.

2) 한자 표현의 차이

한글로는 모두 ‘고잔’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한자로는 ‘고(古, 高, 厓)’, ‘잔(棧, 簗)’ 등으로 표시되고 있다. 39개 ‘고잔’ 지명 중에서 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6개(15.4%)이고, 확인 가능한 경우는 33개(84.6%)인데, 이 중 ‘古棧’(24개, 61.5%)으로 표현되는 곳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高棧’(7개, 17.9%), 그리고 ‘厓棧’(전북 고창군, 그물 **고**)과 ‘高簗’(인천 강화군, 술잔 **잔**)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각각 1개씩 있다(표 6).

글자를 첫글자와 뒷글자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첫글자가 ‘古’로 표시되는 경우는 24개(61.5%), ‘高’로 표시되는 경우가 8개(20.5%), ‘厓’(그물 **고**) 표시되는 경우가 1개(2.6%)로 확인 가능한 33개 중에서 ‘古’와 ‘高’로 표시되는 경우가 32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뒷글자의 경우 확인 가능한 33개 중에서 ‘棧’(잔도 **잔**)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32개(82.1%), ‘簗’(술잔 **잔**)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1개(2.6%)이다. 즉, 한자로 확인 가능한 33개 중에서 첫글

표 6. '고잔' 지명의 한자 형태

한자 형태	수 (비율)	지역별
1. 古棧	24개 (61.5%)	평남[1], 황해[3], 인천[1], 경기[10], 충남[3], 전북[6]
2. 高棧	7개 (17.9%)	경기[5: 평택(4), 파주(1)], 인천[1], 충남[1: 서산(1)]
3. 다른 한자	2개 (5.1%)	전북 고창군(罾棧), 인천 강화군(高蓋)
4. 한자 미확인	6개 (15.4%)	경기[2: 김포(1), 화성(1)], 충남[4: 서산(4)]
합계	39개 (100%)	

표 7. '고잔' 지명의 행정상 위계

행정 위계	수 (비율)	지역
1. 고잔동(또는 면)	2개 (5.1%)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 고잔리(행정리)	2개 (5.1%)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부안군 상서면 고잔리
3. 마을명	35개 (89.7%)	
합계	39개 (100%)	

자가 '古'로 표현되는 경우가 24개로 72.7%, 뒷글자가 '棧' '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32개로 97.0%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첫글자보다 뒷글자의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한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먼저 한글 지명이 존재했고, 이 후에 한자화하는 과정에서 차자(借字)의 차이로 보인다. 토박이말이 한자화하는 과정은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빌려오는 음차(音借)와 의미에 맞는 한자를 빌려오는 훈차(訓借, 큰말 → 大村, 긴곳 → 長串)로 나눌 수 있다(김윤학, 1996:244). 이 중 '고잔'의 경우는 음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는 인접하고 있는 화성시와 충남 당진군이 모두 '古棧'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반하여, 평택시의 4개 지명 모두 '높을 고(高)'를 사용하고 있다('高棧'으로 표현된 7개 중 4개에 해당). 이러한 현상은 한자화 과정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확인 가능한 한자 중 '고잔(古棧)'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뒷글자를 '棧'으로 표시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다양한 한자로 차자가 이루어졌지만 '고잔(古棧)'이 원래 존재했던 한글 지명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뒷 글자인 '棧'의 한자명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비하여, 앞 글자가 다양한 한자음(古, 高)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명의 미화에 의하여 '古'자가 '高'자로 변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행정상의 위계

'고잔' 지명의 행정적 위계는 낮은 편인데, 시군단위로

사용되는 지명은 없고, 동이나 면명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2개(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행정리로서 남아있는 경우가 2개(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부안군 상서면 고잔리), 그리고 나머지(89.7%)는 마을명 또는 법정리로서만 존재하고 있다(표 7).

이와 같이 '고잔' 지명의 행정상 위계가 낮은 것은, 포구나 도진 취락 보다 규모가 작은 규모였을 가능성, 옛 고(古)로 표시된 것과 같이 한자로 변환할 당시를 기준으로 과거에는 존재했으나 한자로 변환 당시에는 그 기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즉, '고잔' 지명은 현재 뿐 아니라 한자로 변환할 당시에도 과거 유물에 해당하는 지명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용도 추정

해당 지역의 시군지와 향토지 등의 문서상에 기술되고 있는 지명 유래를 추정해 보면(표 8), 지형조건인 '곶'으로 추정하여 기술하고 있는 곳이 15개(38.5%)로 가장 많고, 나무터로 추정하고 있는 곳이 2개(5.1%)로 나타나며, 그 외 22개 지역(56.4%)은 특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시군지나 향토지를 기술한 집필자들이 '고잔'은 '곶'에서 유래했다는 학계의 우세한 논의를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고, 해당 지역에서 전래되어 온 내용에 바탕을 두었을 수도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 '곶'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고잔' 지명의 특징으로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서해안의 해안변이나 서해안의

표 8. ‘고잔’ 지명의 지명 유래 추정

분류	수 (비율)	지역
1. 지형 조건인 ‘곶’으로 추정	15개 (38.5%)	인천시(남동구), 안산시(단원구), 김포시(대곶면), 파주시(장단면),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우정읍), 평택시(현덕면, 원평동, 포승읍), 당진시(송악읍), 서산시(부석면), 김제시(황산면), 전주시(조촌동)
2. 나루터로 추정	2개 (5.1%)	부안군(상서면 고잔리), 김제시(부량면 옥정리)
3. 미확인	22개 (56.4%)	
합계	39개 (100%)	

표 9. 전라북도 ‘고잔’ 지명의 위치와 특징

시군단위	면리단위	위치특성	마을 유래
김제시(2)	부량면 옥정리 고잔마을(古棧)	동진강	나루터/배가 닿은 곳
	황산면 용마리 고잔마을(古棧)	두월천	곶/3면이 강에 면함/助橋
부안군(2)	상서면 고잔리 고잔마을(古棧)	주상천	과거 배가 닿은 곳
	보안면 유천리 고잔마을(古棧)	해안	
고창군(1)	부안면 송현리 고잔(厓棧)	해안	뽕(그물 고), 소금생산
전주시(1)	조촌동 고잔마을(古棧)	만경강	곶
익산시(1)	평화동(古棧)	만경강	

출처 : 유재영, 1993; 한글학회, 1981.

*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고잔(古棧) 마을은 문헌상에는 존재하지만(1914년), 현재는 마을 이름으로 남아 있지는 않음.

**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高田里) 고전마을은 ‘고잔’이라고 불리기도 함(유재영, 1993:340).

조석간만의 영향을 받았던 하천변에 위치한다는 점, 서해안이지만 분포 범위가 한정되고 경기만 지역에 집중되는 점, 한글 지명이 먼저 존재했고 나중에 한자로 차자가 이루어져 다양한 한자로 표현되고 있는 점, 과거 유물 지명으로 행정상의 위계가 낮다는 점 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고잔’ 지명의 유연성을 추정해보면, 조석간만의 차이가 많은 서해안의 해안변이나 하천변에 위치하면서, 포구(浦)나 나루터(渡, 津) 보다는 규모가 작은 접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고잔’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있는 해안변이나 하천변에 위치하지만 포구나 나루터의 기능보다는 어선이 접안하여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접안시설이 있던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조석간만의 차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접안시설의 형태가 고정식 또는 밀물과 썰물에 적응하는 뜬다리 부두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현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 지역이었고, 그 시설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복하

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명의 유연성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마을의 구체적인 지형 및 인문적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경기만 일대의 마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나, 경기만 일대는 지역개발에 따라 지형변화가 많이 발생하여 원형을 찾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비교적 원형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7개 ‘고잔’ 지명을 대상으로 위치와 지형 및 인문적 특징을 마을별로 살펴본다.

2. 전라북도 ‘고잔’ 지명의 특징

1) 위치 및 지형 특징

전라북도에 분포하는 ‘고잔’ 지명은 전주시(1), 익산시(1), 김제시(2), 부안군(2), 고창군(1)으로 총 7개(17.9%)이다(표 9, 그림 2).

먼저 위치 특성을 살펴보면, 해안가에 위치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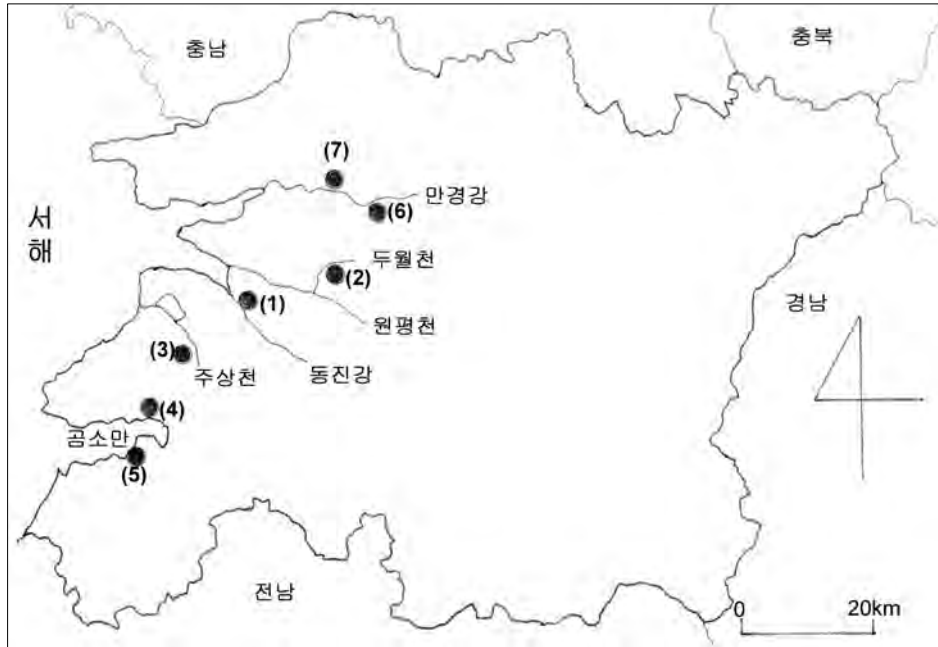


그림 2. 전라북도 '고잔' 지명의 분포(7개)

가 2개(부안군 보안면, 고창군 부안면), 만경강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2개(전주시 조촌동, 익산시 평화동), 동진강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1개(김제시 부량면), 두월천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1개(김제시 황산면), 주상천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1개(부안군 상서면)이다. 총 7개 지점 중 해안가에 2개, 하천변에 5개가 위치하지만, 해안가에 위치하는 2개 마을은 현재 간척사업 등으로 해안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리고 부안군 상서면 고잔리의 경우는 과거 서해의 만 지역이었기 때문에 해안가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의 경우 해안가 보다 조수의 영향을 받았던 하천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한자로는 '고잔(古棧)'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6개이고,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의 경우는 '고잔(罾棧)'으로 '옛 고(古)'가 아닌 '그물 고(罾)'로 표현되고 있다. 행정상의 위계로는 부안군 상서면 고잔리만 행정리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법정리 또는 마을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향토지 등에서 나타나는 용도는 나루터로 추정되는 곳이 2곳(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부안군 상서면 고잔리)이고, '곶'으로 추정하고 있는 곳이 2곳(김제시 황산면 용마리, 전주시 조촌동)이며, 나머지 3곳은 특별한 기술 내용이 없다.

2) 마을별 특징

(1)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고잔마을(동진강)

전라북도에 분포하는 7개 고잔 마을의 위치와 지형적 특성을 살펴보면(그림 3), 먼저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고잔 마을은 동진강 하구에 위치하는데, 주변에 전포, 상포, 군포, 주소(舟所)(유재영, 1993:291) 등과 같이 포구와 관련된 마을명이 분포하고, 동진강을 건너 김제와 부안을 연결하는 나루터로 추정하고 있다. 동진강은 중류의 신태인까지 바닷물이 출입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동진강의 하류에 위치하는 옥정리는 조석의 영향권역에 들어간다. 이 지점은 북쪽의 김제시 부량면과 남쪽의 부안군 백산면을 연결하는 지점으로 지금은 29번 국도(군포교)가 통과하고 있다.

옥정리 고잔 마을은 동진강 인공제방의 북쪽에 위치하며, 인공제방은 마을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그리고 주변 농경지와 마을의 해발고도 차이는 거의 없다(약 5m). 옥정리 고잔 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700m 지점의 구릉지에는 화호리 용서마을이 위치해 있다. 구릉지 상에 위치하는 용서 마을(약 10m 내외)에서 고잔 마을을 살펴보면, 고잔 마을은 용서 마을의 구릉지가 동진강 쪽(서쪽 방향)으로 쪽 뻗어있는 구릉지의 끝 지점에 해당한다.



(1)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고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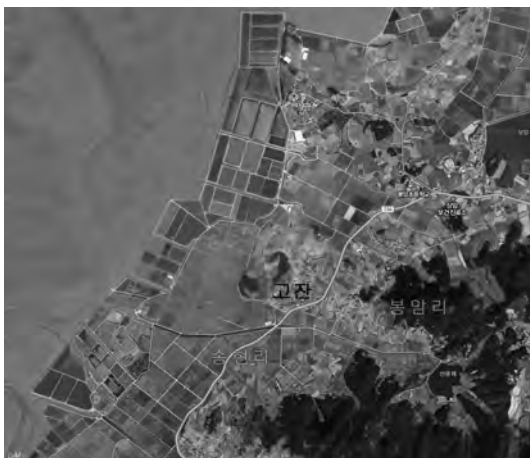
(2) 김제시 황산면 용마리 고잔마을



(3) 부안군 상서면 고잔리 고잔마을



(4)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고잔마을



(5)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고잔마을



(6) 전주시 조촌동 고잔마을

그림 3. 전라북도 ‘고잔’ 마을의 위치

* 총 7개이며, 출처는 Daum 지도임.



(7) 익산시 평화동 고잔마을

그림 3. 전라북도 '고잔' 마을의 위치(계속)

* 총 7개이며, 출처는 Daum 지도임.

이러한 측면에서 고잔 마을은 용서 마을의 구릉성 산지가 동진강 방향으로 뻗어나간 ‘곶’ 지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진강을 건너는 나루터 지점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김제시 황산면 용마리 고잔마을(두월천)

김제시 황산면 용마리 고잔 마을은 금구면에서 시작되어 김제 신월동에서 원평천과 합류하는 두월천의 중간지점으로, 주변에 포구 지명(용랑포, 홍동포, 마천포)이 존재한다(유재영, 1993:301). 마을의 3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나루터의 역할도 했던 곳으로 추정되며, 조교(助橋)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바닷물이 출입하지 않으나, 과거에는 바닷물이 출입했었고, 사금 채취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다.

남쪽의 구릉성 산지에 위치하는 봉월리 마산마을에서 북쪽의 두월천 쪽으로 약 500m 가량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은 주변의 농경지 보다 약 1-2m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남쪽의 구릉지 상에 위치하는 마산마을에서 보면 용마리 고잔 마을은 북쪽의 두월천 쪽으로 튀어나온 ‘곶’ 지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교(助橋) 등의 지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나루터의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

(3) 부안군 상서면 고잔리 고잔마을(주상천)

부안군 상서면 고잔리 고잔 마을은 나무개(목포=木浦,

주산)(유재영, 1993:386)와 같이 포구 지명이 바로 옆에 위치한다(고잔에서 동쪽으로 약 200m). 현재는 사산저수지에서부터 시작되어 청호저수지와 서해로 흐르는 주상천의 중간 지점이지만, 과거에는 서해의 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바닷물이 출입했던 지역이다.

현재는 주상천 바로 옆의 구릉상에 목포마을이 위치하고, 고잔 마을은 주상천으로부터 내륙으로 약 400m 정도 안쪽에 위치한다. 고잔 마을은 마을 뒤의 산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하천쪽으로 튀어나온 지형이다. 구릉상에 위치하여 주변 농경지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행정구역의 위계상으로 행정리인 고잔리로 남아있다. 고잔리 고잔 마을은 마을 뒤의 산지와 연결되어 주상천 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점에서 ‘곶’ 지형으로 볼 수 있다.

(4)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고잔마을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고잔 마을은 구릉과 구릉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한다. 주변에 남포, 외포, 줄포 등의 과거 포구 관련 지명이 있으며(유재영, 1993:382), 곰소만의 바닷가에 면해 있다. 현재는 영전저수지와 함께 마을의 동쪽 부분이 모두 간척되어 과거 모습을 볼 수 없으나, 과거에는 바닷가에 면해 있었던 지역이다.

유천리 고잔 마을은 구릉지와 구릉지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하고, 만지역에 해당되며 마을의 동남쪽으로 바다가 전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은 구릉쪽에 위

치해서 앞의 간척지나 주변 농경지보다는 해발고도가 높다.

(5)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고잔마을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고잔 마을은 한자가 다른 고잔(罟簾)(유재영, 1993:328)이다. 과거 소금 생산 마을로 전해지는데, 현재는 바다에서 약 1km 정도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 약 3km 지점 상암리에 상포라는 포구 마을이 있다.

마을은 구릉상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으며, 바닷물이 들어왔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쪽을 향하고 있다. 구릉상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유천리 고잔 마을과 입지상에서 공통점이 있다.

(6) 전주시 조촌동 고잔마을(만경강)

전주시 조촌동(법정동 : 도도동) 고잔 마을은 자유 사행하는 만경강 쪽으로(남쪽) 튀어나온 지형이고, 주변에 봄개(춘포=春浦)라는 포구가 있다. 또한 상류에는 화전리(花田里)(유재영, 1993:36)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지명은 ‘꽃’이 ‘꽃’으로 음운변화를 일으킨 마을명으로 추정된다. 원래는 만경강 북쪽의 춘포면에 속하는 지역이었지만, 1930년대의 만경강 직선화 공사로 인하여 현재는 만경강 남쪽의 전주시에 속한다. 현재는 마을 북쪽으로 만경강이 흐른다.

마을의 남쪽에는 동→남→서 방향으로 과거 만경강이 흘렀던 구하도가 있으며, 마을은 평탄한 충적지에 위치하는데, 만경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동쪽에서는 주변 지역과 해발고도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약 1-2m), 하류인 서쪽으로 갈수록 해발고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약 4-5m). 만경강 직강화 공사 이전에 가장 가까웠던 사천 마을과는 약 1km의 거리에 있다. 만경강 쪽(남쪽)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꽃’ 지형으로 볼 수 있다.

(7) 익산시 평화동 고잔마을(만경강)

익산시 평화동에는 만경강의 자유곡류 부분에 앞고잔과 뒷고잔 마을이 약 200m거리를 두고 남과 북에 위치한다. 주변에는 신촌 나루터, 나룻가, 옛뚜기(옛 뚝) 등의 마을명이 있다. 과거에는 만경강의 본류가 흘렀던 지역이고, 행정구역상으로 만경강의 남쪽 지역인 김제시 백구면 지역이었으나, 1930년대 만경강의 직선화 공사와 1957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김제시 백구면에서

만경강 북쪽의 익산시 평화동으로 소속이 변했으며, 현재 만경강의 본류는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충적지형이며 해발고도가 주변 농경지와 비슷하다. 주변의 나룻가 마을과는 약 1km, 신천마을과는 약 700m 거리에 위치하는데 평탄한 지형으로 연결되며, 서쪽에는 목천포천이 흐르며 이곳에 고잔교가 위치해 있다. 지금은 목천포천이 정비되어 서쪽으로 흐르고 있어 마을이 하천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나, 과거에는 마을의 동쪽으로 하천이 흐른 흔적이 남아 있고, 구하도는 현재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위치상으로는 ‘꽃’ 지형이라고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나루터 마을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고잔’ 지명의 유연성 검토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에 존재하는 7개의 ‘고잔’ 마을은 해안가에 2개, 그리고 조수의 영향을 받는 내륙의 하천변에 5개가 위치하여, 해안변보다 하천변에 더 많이 분포한다. 전라북도 ‘고잔’ 마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모두 서해안의 조석간만의 영향을 받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조석간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는 모두 조수의 영향을 받는 지점이었다.

둘째, ‘고잔’ 마을의 주변에 과거 포구를 의미하는 마을명이 존재한다(표 10). 김제 부량면 옥성리 고잔마을 주변에 전포, 상포, 군포, 주소(舟所) 등 배와 포구를 의미하는 지명이 존재하고, 김제 황산면 용마리 고잔마을 주변에도 용랑포, 홍동포, 마천포 등의 마을명 존재한다. 그리고 부안군의 상서면 고잔리 고잔마을의 경우 바로 옆에 목포와 주산(舟山) 마을이 존재하고, 보안면 유천리 고잔마을 부근에도 남포, 외포, 줄포 등의 포구 지명이 존재한다. 또한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고잔마을도 거리는 있지만 북쪽에 상포마을이 있고, 전주시 조촌동 고잔마을 역시 가까운 곳에 춘포라는 포구 마을이 있으며, 익산시 평화동 고잔 마을 부근에는 신촌 나루터, 나룻가 등의 나루터 마을명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고잔 마을 부근에 포구나 도진 마을명이 분포하는 것을 보면, 포구나 도진 취락이 발달할 수도 있었던 지역이지만, 포구나 나루터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행정상의 위계가 낮게 나타나는 유물지명이라는 점과 포구 지명과 함께 존재하는 점에서 ‘고잔’ 마을은 포구나 도진 마을 이전에 존재했었던

표 10. '고잔' 마을 주변의 포구와 나루터

시군	세부 행정구역	주변 포구와 나루터 관련 지명
김제시(2)	(1) 부량면 옥정리 고잔(古棧)	전포, 상포, 군포, 주소(舟所)
	(2) 황산면 용마리 고잔(古棧)	용랑포, 흥동포, 마천포
부안군(2)	(3) 상서면 고잔리 고잔(古棧)	목포
	(4) 보안면 유천리 고잔(古棧)	남포, 외포, 줄포
고창군(1)	(5) 부안면 송현리 고잔(古棧)	상포
전주시(1)	(6) 조촌동 고잔(古棧)	춘포
익산시(1)	(7) 평화동 고잔(古棧)	신촌 나루터, 나룻가

표 11. '고잔' 마을의 지형 특성

고잔 마을	위치 특성(추정)	주변 지역과 고도 차이
(1) 김제 부량면 옥정리	하천쪽으로 나감(곶)	거의 없음
(2) 김제 황산면 용마리	하천쪽으로 나감(곶)	1-2m 높음
(3) 부안 상서면 고잔리	하천쪽으로 나감(곶)	1-2m 높음
(4) 부안 보안면 유천리	구릉상의 골짜기(만)	4-5m 높음
(5) 고창 부안면 송현리	구릉상의 골짜기(만)	4-5m 높음
(6) 전주 조촌동	하천쪽으로 나감(곶)	4-5m 높음
(7) 익산 평화동	하천변(나루터)	거의 없음

마을로 추정할 수 있다. 즉, '고잔' 마을이 먼저 존재했고 '고잔' 마을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은 후에 등장하는 포구나 나루터 마을이 그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마을과 주변 농경지와의 해발고도 차이에서는 3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먼저 익산 평화동과 김제 부량면 옥정리의 고잔 마을은 주변 농경지와 해발고도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김제 황산면 용마리, 부안 상서면 고잔리, 전주 조촌동의 고잔 마을은 주변 농경지보다 약간 높은(약 1-2m) 구릉상에 위치한다. 그리고 부안 보안면 유천리와 고창 부안면 송현리의 고잔 마을은 구릉을 배경으로 구릉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농경지와 상당한 고도차(약 4-5m)를 보이고 있다(표 11).

넷째, 마을 위치의 특징 측면에서는, 김제 부량면 옥정리와 김제 황산면 용마리, 그리고 부안 상서면 고잔리의 고잔 마을은 구릉상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부안 보안면 유천리와 고창 부안면 송현리의 고잔 마을은 구릉상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주 조촌동과 익산시 평화동의 고잔 마을은 평탄한 충적 지형상에 위치해 있다.

다섯째, 바다나 하천 쪽으로 빠져 튀어 나왔다는 측면을 기준으로 '곶' 지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은 김제 부량면 옥정리, 김제 황산면 용마리, 부안 상서면 고잔리, 전주시 조촌동의 4곳이다. 익산 평화동의 경우는 '곶' 지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구릉상에 위치하는 부안 보안면과 고창 부안면의 경우는 오히려 '만'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곶' 지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은 7개 중 4개 정도이다. 따라서 과거의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고잔'이라는 지명이 반드시 '곶' 지형과 관련된다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내 분포하는 7개의 '고잔' 마을은 서해안의 조석간만의 영향을 받는 지점이었고, 주변에 포구와 함께 분포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마을과 주변 지역의 해발고도 차이, 마을의 위치, 그리고 '곶' 지형으로의 분류 가능성 측면에서는 마을별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고잔' 지명의 전국적인 분포 특징과 전라북도 지역 '고잔' 마을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잔' 지명의 유연성을 추정해 보면, 모든 마을이 서해안의 조석간만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지점이라는 측면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에 적응하는 시설이 있었던 마을로 추정할 수 있

다. 또한 모두 해안가와 하천가에 위치하여 포구나 나루터의 역할 그리고 어업관련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지명상의 위계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오래된 과거의 지명이라는 점과 어느 시기에는 그 기능의 유용성이 없어졌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에 포구명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포구가 등장하기 이전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복해 주는 어업 관련 접안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후 등장한 포구나 나루터 마을이 이러한 기능까지도 담당하면서 쇠퇴한 마을로 추정된다.

또한 ‘고잔’이 ‘곶’에서 유래했다는 해석은 지명의 지형적 특성보다는, [곶 = 곶 + ㅈ ⇒ 고잔이라는 언어적 특성에 기반 한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 즉, ‘고잔’이라는 지명은 ‘곶’이라는 지형조건과는 관계없이, 언어적 특성에 의해서 해석이 이루어졌고, 실제로는 과거 어업과 나루터 기능으로 이용되었던 ‘잔교’가 있던 마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후 규모가 큰 포구나 나루터 마을이 들어서면서 그 기능이 흡수되었던 마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잔교’ 역시 육지와 바다의 연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튀어 나온 ‘곶’ 지점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고잔’ 지명은 반드시 ‘곶’이라는 지형적 조건보다는 ‘잔교’라는 인문적 조건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지명으로 추정된다.

IV. 결론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잔’ 지명의 유연성에 대한 논의는 ‘고잔’은 지형조건인 ‘곶’에서 유래한 한글지명이, 한자로 차자(借字)된 것으로 해석하는 논의가 우세했다. 그러나 ‘고잔’ 지명은 자연조건인 ‘곶’과 함께 인문조건인 ‘잔교’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잔’ 지명은 서해안 지역에만 분포한다. 서해안 중에서도 평안남도과 전라북도 사이에서만 분포한다. 특히 경기만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러한 분포 특성은 이 지명이 반드시 지형조건에서만 유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명이 과거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명이라는 점과 이러한 분포 특성은 과거 이 지역을 세력권으로 했던 백제 영향권의 지명이었

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해안면에 위치하는 경우와 하천면에 위치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모두 조석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지금은 간척과 개간 등에 의해서 해안이나 하천면의 특성을 상실한 경우도 많지만, 과거에는 조석간만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던 지점들이다.

셋째, ‘고잔’은 한자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글이름이 먼저 존재했고, 이 후에 한자화하는 과정에서 차자의 지역차이와 지명의 미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자로 ‘고잔(古棧)’이 가장 많고, 뒷 글자인 ‘잔(棧)’자가 거의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서, 잔교라는 특성을 반영한 ‘고잔(古棧)’이라는 한자의 표기가 본래의 의미를 가장 가깝게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잔’이라는 지명은 ‘곶’이라는 지형적 특성보다는 ‘잔교’가 있었던 곳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음(音)의 차자(借字)가 아닌, 훈(訓)의 차자(借字)였을 가능성도 있다.

넷째, 행정구역의 위계에서 면이나 행정리로 존재하는 경우보다는 마을명으로 존재하는 사실로 보면, 현재 보다는 과거에 그 기능이 존재했던 지역이고, 현재는 그 기능이 의미가 없는 유물지명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준으로 추정하기 보다는 지명이 탄생한 시점에서의 특성을 파악해야 이 지명의 유연성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마을의 위치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 및 상대적 해발고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강이나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구릉상의 골짜기에 위치하는 마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곶’ 지형과 관련된다고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주변에 포구 지명과 함께 존재한다. 이것은 ‘고잔’ 마을이 포구나 나루터 등 수상교통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추정된다. 즉, 포구나 도진취락이 수행했던 수상교통의 역할보다는 서해안의 조석간만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어로활동 관련 시설이나 그에 따른 접안 시설로 추정할 수 있다. 나루터나 포구 마을보다 먼저 존재했고, 이 후에 그 기능이 상실한 어로 관련 접안 시설이 있었던 마을로 추정할 수 있다.

‘고잔’이라는 지명은 지형조건인 ‘곶’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잔’이라는 지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전국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서해안 지역 특히 경기만 일대에 집중 분포하는 점, 주변에 포구

나 나루터 마을이 함께 분포하는 점, 반드시 하천이나 바다로 튀어 나온 지역이 아닌 구릉상의 골짜기에도 입지한다는 점 등에서 ‘고잔’이라는 지명이 반드시 ‘곶’ 지형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고잔’ 지명의 유연성은 지형 조건인 ‘곶’보다는 포구나 나루터가 등장하기 이전에 어로 관련 접안시설이 위치해 있었던 마을로 추정할 수 있다. 이 후 포구나 나루터가 등장하면서 그 역할이 상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고잔’ 지명은 지형적 특성인 ‘곶’ 보다는 잔교 또는 접안시설과 같은 인문 조건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지명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기만 일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고창군, 2009, 「고창군지」.
 김병욱, 1997, “지명어 연구(Ⅱ),” 국어교육, 60, 1-22.
 김윤학, 1996, 「땅이름 연구」, 박이정.
 김제시, 1995, 「김제시사」.
 부안군, 2015, 「부안군지」.
 유재영, 1993, 「전북전래지명총람」, 문음사.
 이영택, 1986, 「한국의 지명」, 태평양.
 이철수, 1982, “지명언어학 연구서설(Ⅰ) - 지명언어학 연구 영역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0(3), 456-475.
 익산시, 2002, 「익산시사」.
 전주시, 1997, 「전주시사」.
 조성욱, 2004, “지리교육에서 지명학습의 의의와 도입방안,” 지리과교육(6), 79-94.

조성욱, 2007, “만경강의 역할과 의미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2), 187-200.
 조성욱, 2012,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의 계층별 특성: 전라북도 시군명과 면명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1), 125-136.
 조성욱, 2015, “동일 지명의 형성 과정 고찰: 전북의 성수면과 성수산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4(1), 47-6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글학회, 1974, 「한국지명총람: 충청편 4(상, 하)」.
 한글학회, 1979, 「한국지명총람: 경남 8」.
 한글학회, 1981, 「한국지명총람: 전북 11(상)」.
 한글학회, 1985,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
 한글학회, 1986, 「한국지명총람: 18(경기편/인천편)」.
 지형도(1:50,000, 1911, 만경 도폭, 익산 도폭)
 Daum(지도, 국어사전, 백과사전), <http://www.daum.net>
 Naver 지식백과(두산백과), <http://www.naver.com>

교신 : 조성욱,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chossww@jbnu.ac.kr)

Correspondence : Sungwook Cho, 54896,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 Jeonla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ssww@jbnu.ac.kr)

투 고 일: 2015년 11월 23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5일
 투고확정일: 2015년 12월 6일